**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Please strengthen me just once more !**

**<사사기 16장 15-31절>**

15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세 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16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17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18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 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 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19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일곱 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20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21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 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22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23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 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24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 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 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25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재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재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26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27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삼천 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재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28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29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30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31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이십 년 동안 지냈더라

오늘 우리는 삼손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을 함께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이방 민족에게서 자기 민족을 구원하던 삼손이 어느 날 여인의 재촉에 못이겨 자기 힘의 근원을 발설하게 됩니다. 그 결과 그는 머리털이 다 밀린 상태에서 아무 힘도 쓰지 못하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버립니다. 두 눈이 빠지고 사지가 놋줄에 매인 상태에서 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비참한 신세로 그는 전락합니다. 하지만 그 동안에도 그의 머리털은 다시 자라기 시작하고, 그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마지막 기회를 조용히 기다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블레셋 사람 약 삼천 명이 자기 신에게 제사하며 승리를 자축하러 모인 자리에서, 삼손은 그 건물을 떠받치는 두 기둥을 양손에 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이 본문 28절 말씀 가운데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를 뽑아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삼습니다.

삼손은 이스라엘의 사사로 이십 년간 활동했습니다. 사사란 가나안 정착을 지휘했던 여호수아가 죽은 뒤 초대왕 사울이 세워지기까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쓰임받던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시기의 특징에 대해 사사기는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는 말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악을 행하며, 하나님 대신 주위 이방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런 모습이 극에 달할 때마다 하나님은 주변 나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노략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괴로움에 못이겨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그때마다 사사들을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패턴이 사사시대 내내 반복되었습니다.

삼손이 태어나던 시점에 이스라엘은 40년째 블레셋이란 나라로부터 괴로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 블레셋은 매우 호전적이고 싸움을 잘 하는 민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후에 다윗이 물멧돌로 싸워 넘어뜨리는 거인 골리앗이 바로 이 블레셋 장수였습니다.

어느날 여호와의 사자가 소라 땅 단 지파에 속한 마노아라는 사람의 아내에게 나타나 말합니다.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삿13:5).

민수기 6장에 보면 ‘나실인’은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린” 사람을 말합니다. 율법에 따르면, 나실인이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야 하는데, 이는 그가 자기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머리에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민6:5,7).

이후 여인은 예언대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삼손이라 합니다. 아이가 자라 마침내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그는 엄청난 괴력가로 세상에 나타나게 됩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할 때마다 그는 굉장한 힘을 발휘하며 블레셋 사람들을 제압합니다. 그를 결박하고 있던 밧줄을 끊은 다음 나귀 턱뼈를 집어들고 천 명을 죽인 사건은 유명한 일화로 남아 있습니다. 호전적인 민족 블레셋 압제의 시대에 하나님은 강한 힘을 발휘하는 사사를 세워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삼손에게는 약점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그에 관해 기록된 일화들에는 모두 이방여인들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14장과 15장의 사건은 삼손이 딤나에 살던 한 블레셋 여인을 보고 그와 결혼하려 하면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16장의 전반부는 가사에 살던 한 기생여인과, 후반부는 소렉 골짜기의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물론 삼손이 그 여인들과의 관계를 매개로 블레셋인들을 치려는 속셈을 가진 적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삿14:4). 하지만 그 여인들로 인해 번번이 애초의 계획에 차질을 빚었고, 종래엔 그로 인해 비참한 상태에 떨어지고 만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사주를 받은 들릴라가 삼손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그 큰 힘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며, 어떻게 하면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시킬 수 있나요?” 이에 대해 세번에 걸쳐 삼손이 거짓으로 대답하자 들릴라가 원망섞인 음성으로 말합니다. “당신이 세번이나 내게 거짓말 하는 것을 보니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틀림없군요.” 사랑하는 여인에게 이런 말을 들으니 삼손의 마음이 고민되어 죽을 지경이 됩니다. 결국 17절에서 그는 진실을 말하게 됩니다. 17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삼손의 힘의 비결은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긴 머리였습니까? 예, 하지만 그것은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일 뿐입니다. 태어나서부터 한번도 삭도를 대지 않은 그의 긴 머리는 그가 나실인으로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존재라는 뜻이었습니다. 바로 그 의식으로부터 그의 힘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놀라운 힘을 발휘할 때, 그의 긴 머리에 대한 언급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였다”는 설명만이 반복되고 있을 뿐입니다. 그의 긴 머리는 하나님을 향한 그의 거룩한 헌신의 표시였고,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려진 존재라는 이 의식은 이방여인의 품속에서 점차 희미해져갔습니다. 어쩌면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이 들릴라를 이용해 자기를 해하려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 전에도 이미 몇 차례 그와 비슷한 일을 당한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위험을 알고 있었음에도 어쩌면 그는 자기 힘으로 능히 그 위험을 제어할 수 있으리라고 과신했는지 모릅니다. 그가 이방여인들을 찾아간 것은 그것을 고리로 블레셋인들에게 원수를 갚고 동족을 구원하기 위함이었는지 모르지만, 그러다 어느 순간 한 여인에게 마음을 빼앗겨 자기 힘의 근원을 잃게 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원수들에 의해 눈이 빠지고 사지가 놋줄에 매인 채 옥에서 맷돌을 돌리고 있는 비참하고 무기력한 삼손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연상하십니까?

세상의 빛이 되지 못하고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을 연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얼마전 크리스찬 석학 중 한 분인 손봉호 교수님의 글을 보니까, 오늘날 한국교회의 처지가 ‘동네 주인없는 개’의 모습과 같다고 하시더군요. 과거에도 기독교와 교회를 싫어하고 욕하는 사람들은 늘 있었지만, 기독교인들이 사회에서 제 역할을 할 때는 다른 사람들 시선이 두려워 대놓고 욕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한국교회의 처지는 지나가다 그냥 기분 나쁘다고 걷어차도 아무도 뭐라 할 사람 없는 동네 주인없는 개와 다름없다면서, 한국기독교인들의 윤리 회복을 역설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국교회가 어쩌다 이 지경에까지 이르렀을까? 사실 저는 이에 대해 무슨 말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현실은 그 교회의 일원인 우리 자신의 현실과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라면 오늘 말씀에 비추어 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삼손의 비극은 그가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려진 사람이라는 의식이 옅여진 결과였습니다. 그 의식이 약해지자 그는 급격히 힘을 잃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 그를 통해 강하게 역사하시지 못했습니다.

얼마전 한 무리의 그리스도인들이 인도의 어느 불교사원에 들어가서 큰 소리로 기도하다 거기서 묵언수행중이던 한국스님에 의해 언론에 고발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와 비슷한 일이 예전에도 있었지요. 일부 기독학생들이 대학캠퍼스에 세워져있던 천하대장군을 뽑아버리는 일도 있었고, 보수기독교인들이 한국의 어느 불교사찰에서 땅밟기기도를 해서 문제가 된 적도 있었습니다.

이런 식의 행위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열심이 과도해서라고만은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승리가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에게 요청되는 힘이 무엇인지, 바로 이해하지 못한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님은 군병들에게 잡혀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셨습니다. 풍랑을 잠재우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던 그 능력은 어디에 버려두시고, 왜 그분은 이처럼 무기력하게 잡혀 죽으셨던 것일까요? 베드로가 칼을 휘둘러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열두 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마26:53-54).

예수님은 힘이 없으셔서 사람들에게 잡혀 죽으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기꺼이 잡혀 죽으실 만큼 힘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인류의 구원을 위한 성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온전히 복종시킨 그분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강력히 역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존재”라는 확고한 의식에서 나오는 그 영적인 파워가 여러분의 삶을 이끌고 있습니까?

저 자신에게 이 질문을 던졌을 때, 부끄럽지만 저는 그렇다고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지금 제 모습이 그렇지 못하다고 느꼈기에,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여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는지 모릅니다.

20대 초반에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앞으로 평생 이 진리에 살고 이 진리에 죽겠다고 다짐했었습니다. 그런데 진리를 향한 그 열정이 어느덧 제 안에서 많이 사그러져 있는 것을 느낍니다.

20대 후반에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부족하지만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양들을 섬기는 목회자가 되기로 헌신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안에 주님의 마음이 너무 적어서 이 목양의 길을 허걱대며 건성으로 가고 있는 제 모습을 바라봅니다.

30대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에 감격하여, 어디서든 말과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했었습니다. 학자가 되는 길을 버리고 선교사의 길을 택할 때 제게는 조금의 미련도 없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이 가장 귀한 일이라는 확신과, 그 주님을 따르는 길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리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곳 체코에서 선교사로 살아가면서, 때때로 저는 지금 내가 여기서 뭘하고 있나 회의가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존재라는 의식이 희미해져 있을 때, 그리하여 나를 이곳으로 이끌었던 하나님의 영에 이끌림받지 못할 때, 마치 두 눈이 빠지고 사지가 놋줄에 매인 채 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삼손과 같이, 저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비전과 능력을 상실한 채 무기력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주님을 향한 첫 사랑의 체험이 있으시지요?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헌신을 결단한 경험이 있으시지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서 강하게 역사하셨던 체험이 있으시지요? 여러분의 삶 속에 영적인 파워가 나타나 여러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을 경험한 분도 아마 있으실 줄 압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서 성령이 에베소교회를 향해 하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계2:4-5).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 못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을 우리를 향해 늘 신실하시고 또한 자비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삼손이 옥에서 맷돌을 돌리고 있는 동안 그의 머리는 다시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삼손이 죽기전 마지막 힘을 쓸 때 그의 머리가 얼마나 자라 있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전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가 마지막에 그렇게 힘을 쓸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머리카락 때문이 아니라 그의 기도를 들으신 능력의 하나님으로 인한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에겐 소망이 필요합니다. 소망이 있어야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동안 삼손은 그의 머리가 자라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서 그는 소망을 보았습니다. 그가 다시금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드릴 때, 어쩌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그를 통해 일하실 지 모른다는 소망을 품게 된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희희낙락하는 소리가 들려오는 가운데,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양손으로 두 기둥을 붙들고 그는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시옵소서” “Please strengthen me just once more!” “하나님, 이제껏 제가 어리석게 행하였사오나, 이것이 마지막이라도 좋으니 한번만 더 나를 당신의 영으로 강하게 하사 나를 통해 당신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소서!”

하나님은 삼손의 이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가 다시금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드리며 힘을 썼을 때, 하나님은 그가 살았을 때 행했던 일보다 더 놀라운 일을 그의 죽음을 통해 이루십니다.

사랑하는 꼬빌리시교회 성도 여러분!

삼손처럼 다시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드리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능력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나를 강하게 하시옵소서!” 이 삼손의 기도는 결코 늦은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이 기도와 함께 다시 시작하십시다. 그 동안 나를 얽어매고 있던 모든 죄와 연약함의 사슬들을 성령 안에서 과감히 끊어버리고,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잠시나마 각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며 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는 기도를 잠시 드리고 제가 마무리기도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다시금 하나님께 거룩히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첫 사랑, 우리의 첫 헌신이 회복되는 은혜를 주옵소서. 성령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를 강하게 하사,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다시금 하나님께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여 드리며,**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받은 소명을 따라 세상에서 승리하기 원하는**

**꼬빌리시 온 교우들 머리 위에**

**체코교회와 한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